

2026년 3분기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BSI)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2. 조사방법 및 시점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시점 : 2026. 6월 기준
- 분석대상 : 119개 응답 업체

2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전망에 대한 응답 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 업체 수} - \text{부정적인 응답 업체 수})}{\text{전체 응답 업체 수}} \times 10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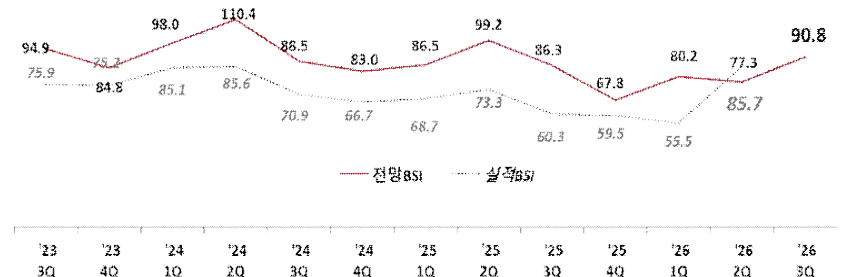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 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II 2026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

● 2026년 3분기 전망 BSI '90.8', 1분기 실적 BSI '85.7'

- 중등 지정학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전기·전자(81.0), 철강금속(85.0), 기계·장비(84.6), 자동차·부품(93.8)은 일제히 기준치를 하회하였음. 반면 조선 및 방위산업 수주 확대 기대감에 힘입은 기타운송장비(140.0)는 기준치를 상회함.
-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103.3)이 기준치를 상회하며 중소기업(86.5)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음. 매출형태별로 살펴보면 수출기업(96.7)과 내수기업(98.9) 모두 기준치를 밑돌고 있어,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 전망 BSI : 매출액(100.8), 영업이익(90.8), 설비투자(87.4), 자금사정(81.5)
- 업종별 전망 BSI : 기타운송장비(140.0), 자동차·부품(93.8) 철강금속(85.0), 기계·장비(84.6), 전기·전자(81.0), 기타(105.6)
- 특성별 전망 BSI : 대·중견기업(103.3), 중소기업(86.5) 수출기업(96.7), 내수기업(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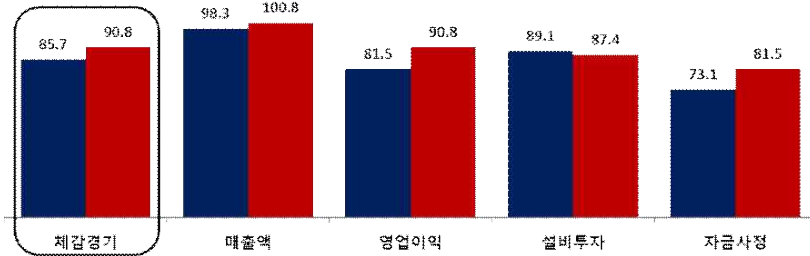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 체감경기 지수는 절대적인 실적이 아닌, 앞선 분기와 비교해 상대적 체감 정도를 의미하므로 지수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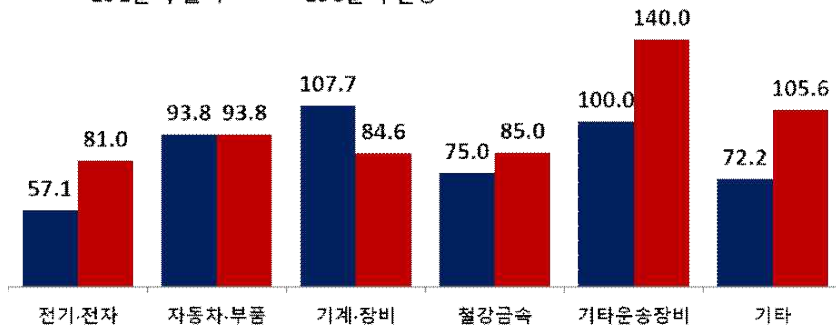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 '26 2분기 실적 ■ '26 3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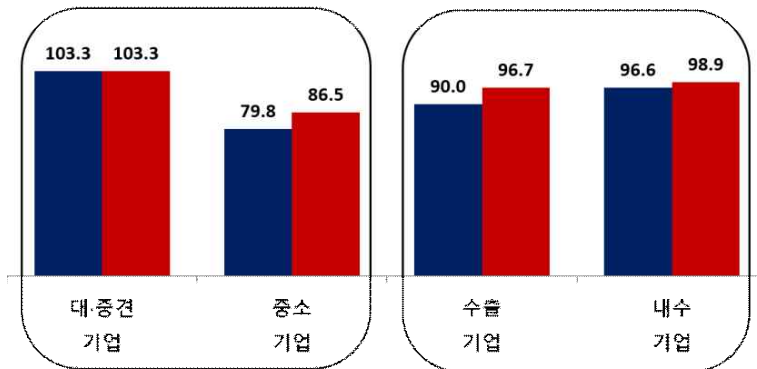


업종별 실적 및 전망 BSI

■ '26 2분기 실적 ■ '26 3분기 전망



■ '26 2분기 실적 ■ '26 3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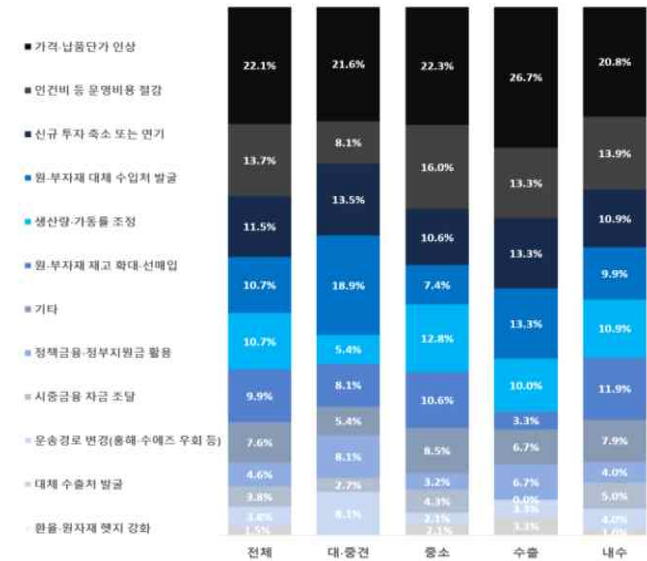
● 중동전쟁 지속으로 인해 하반기 경영·운영계획에 변동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47.1%가 '변동 있음'으로 답변, 변화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납품단가 인상'(22.1%)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인건비 등 운영비용 절감'(13.7%), '신규 투자 축소 또는 연기'(11.5%), '원·부자재 대체 수입처 발굴'(10.7%), '생산량·가동률 조정'(10.7%), '원·부자재 재고 확대 선매입'(9.9%), '정책금융·정부지원금 활용'(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가격·납품단가 인상'(대·중견 21.6%, 중소기업 22.3%)을 가장 우선적인 대응 방안으로 꼽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음. 다만 대·중견기업은 '원·부자재 대체 수입처 발굴'(18.9%)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공급망 다변화에 무게를 둔 반면, 중소기업은 '인건비 등 운영비용 절감'(16.0%)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용 측면의 대응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형태별로는 수출기업(26.7%)과 내수기업(20.8%) 모두 '가격·납품단가 인상'(수출 26.7%, 내수 20.3%)을 가장 많이 꼽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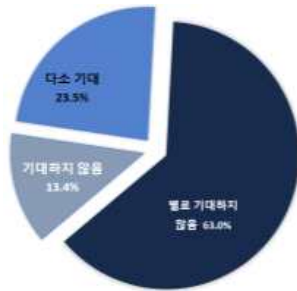
하반기 경영·운영계획 변화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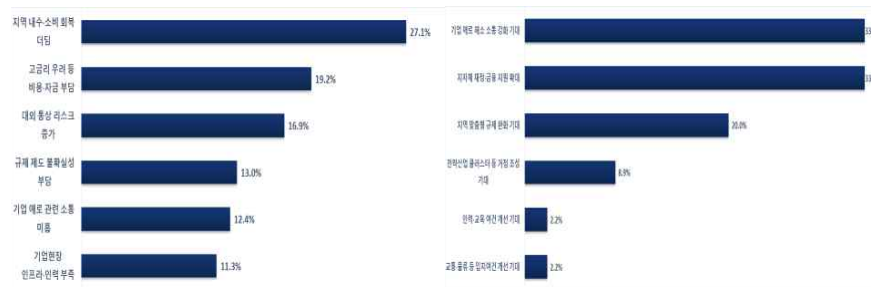
Ⅲ 민선 9기 지자체에 바라는 기업의견 조사

-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 '별로 기대하지 않음' 63%, '기대하지 않음'은 13.4%로 나타나 부정적 응답이 응답업체의 약 76%에 달함.
- 경영환경 개선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역 내수소비 회복 더딤'(27.1%), '고금리 우려 등 비용·자금 부담'(19.2%), '대외 통상 리스크 증가'(16.9%) 등을 꼽았으며, 기대하는 이유로는 '기업애로 해소 소통 강화 기대'(31.3%), '지역 재정·금융 지원 확대'(31.3%),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기대'(20.0%)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지역 경영환경 개선 기대



경영환경 개선에 대해 기대하지않는 이유(좌), 기대하는 이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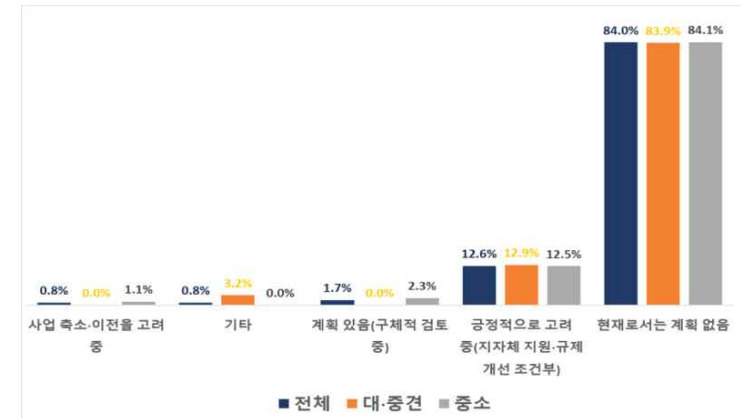


-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한 향후 지역 내 사업 확대 또는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84.0%가 '현재로서는 계획 없음'이라고 응답하였음.

- 이어서 '지자체 지원·규제 개선을 조건부로 긍정적으로 고려 중'(12.6%), '계획 있음(구체적 검토 중)'(1.7%), '사업 축소·이전을 고려 중'(0.8%), '기타'(0.8%) 순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중견기업(83.9%)과 중소기업(84.1%) 모두 '현재로서는 계획 없음'이 80%대 중반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 투자 확대에 대한 신중한 태도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남.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향후 지역 내 사업 확대 또는 투자 계획 여부



- 투자 실현을 위해 차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세계 감면·보조금 등 지자체 재정지원 강화'(25.0%)가 전체 응답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이어서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성장 거점 조성'(17.3%), '입지·시설·환경 규제 완화(네거티브 규제로 전환)'(16.9%), '노사관계 안정 및 산업안정 지원체계 구축'(11.7%), '정주여건 개선 및 청년 인재 유입 환경 조성'(9.7%) 순으로 나타나, 재정 지원과 더불어 규제 완화·산업 기반 조성에 대한 기업의 요구가 큰 것으로 분석됨.

-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이 '입지·시설·환경 규제 완화(네거티브 규제로 전환)'(24.6%)를 가장 많이 요구한 반면, 중소기업은 '세제 감면·보조금 등 지자체 재정지원 강화'(26.2%)를 가장 많이 꼽아, 대·중견기업은 규제 완화를, 중소기업은 재정·행정 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형태별로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모두 '세제 감면·보조금 등 지자체 재정지원 강화'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나(수출 23.6%, 내수 25.4%), 두 번째 우선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임. 수출기업은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성장 거점 조성'(21.8%)을 두 번째로 중요하게 꼽은 반면, 내수기업은 '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 체계 구축'(19.2%)을 두 번째로 꼽아, 수출기업은 산업 기반 조성을, 내수기업은 행정 대응력 강화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투자 실현을 위해 차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

